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 현장스케치] 7월4일, 화성시 청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7.05 13:10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천둥을 동반한 비가 오지 않았다. 유족들이 하루종일 쏟아낸 눈물에 비가 물러났는가 싶다. 억울하게 떠난 우리 가족 추모라도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내질렀던 절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성시청을 메워서 천둥이 설자리가 없었는가 싶다.

7월 4일 목요일은 아리셀 리튬배터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난 지 열하루만에 드디어 아리셀 중대재해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세상에 공개된 날이다. 유족들은 위패와 영정을 화성시청 정문 분향소에 세우기 위해서 슬퍼할 새 없이 싸워야 했다.

화성시는 전날 분향소에 위패와 영정을 올리겠다고 해놓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우리 부서는 그런 얘기한적 없어 우리 소관 아니라며, 유족들을 앞에 두고 책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정문 분향소 대신 지하 2층에는 희생자 영정을 놓는 걸 '허락하겠다'는 게 고민 끝에 나온 화성시의 발언이었다. 활동가로 구성된 대책위는 그 즉시 떠올렸다. 10.29 이태원 희생자 분향소를 서울시청 앞이 아니라 녹사평역 지하 4층에 놓자던 지방정부의 이름만 바꾸고, 희생자 이름만 바뀌었다고.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유족들은 화성시장 집무실 앞에서 농성했고, 분향소 앞에서도 농성했다. 결국 오후 3시, 화성시청 본관에 도착한 위패와 영정이 드디어 무사히 모셔졌다. 이제서야 희생당한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어떤 유족은 희생자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통곡하다 기력이 다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돌아왔다. 그런 날이었다.

큰 싸움을 치르고, 취재진은 하나 둘 떠나갔다. 가족들이 제일 지쳤고, 책임당국과 싸우고 취재진 대응한 대책위가 그 다음으로 지쳤다. 유족들은 아침 인사로 '안녕하세요' 대신 '오늘도 버티자'고 한다. 안녕하냐는 말은, 힘내라는 말은 어쩔수 없이 죄스럽게 들린다. 잘못된 것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안해한다. 축축한 목요일, 죽음의 무게가 화성시청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

오후 7시에는 시민추모제가 열렸다. 참석자는 70명 남짓, 시간은 한시간 여. 앞줄부터 유족들이 자리를 채워 앉았다. 의자에 놓인 LED 촛불을 든다. 슬프다고만 하기에는 몸이 너무 축났다. 누구는 너무 지쳐서 표정을 지을 수 없다. 탈진했고, 피곤하고, 멍하다. 쉬고싶다. 슬프기만 하고 싶다. 약하게 술냄새가 나고, 담배냄새도 약간 난다. 구부정하게 앉았다. 추모제가 시작된다.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2명도 안산에서 추모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지구인의 정류장'김이찬 대표는 추모제 발언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어야 하는데 오늘에야 그 이름을 알게 됐다. 희생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화성시환경운동연합 박혜정 공동대표는 "안전교육 두 시간이 그렇게 아까웠을까? 대피로를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에 화도 나고 화성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다"고 발언했다.

문화노동자 류금신이 위로의 노래를 불렀다. 故 김용균을 기리며 만든 노래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를 불렀고, '우리는 사람이다'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울었고, 노래를 듣는 사람도 울었다.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추모제 앞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유족도 있고, 중간에 자리를 뜨는 유족도 있다. 자리를 뜬 유족들은 류금신의 구슬픈 노래를 배경으로 가족의 영정을 다시 한번 보러갔다. 내새끼 얼굴한번 사진으로나마 한번 더 만져본다. 화성시청 안에서 밖에서 공무원들은 떠나지 않고 행사를 지켜본다. 발언을 듣는듯 하다가 무언가를 보고하는 듯 하다가 한다. 이들이 곧바로 화성시의 얼굴이다.

화성 지역신문인 화성시민신문은 이 모든 현장을 중계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순간부터 대책위가 꾸려진 기자회견, 화성시청으로 투쟁이 옮겨갈 때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기자와 피디가 한 명씩 각자 이곳의 일들을 기록한다. 생중계가 있어 멀리에서도 추모의 마음이 모아진다.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본부장이 발언에 나섰다. 추모제를 시작하고 나서도 이미 몇번은 울었다 그쳤다는 목소리다. 김 본부장은 “힘드시겠지만 희생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며 가족들에게 당부해본다.

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 김정수 이사장은 “이전에 아리셀에서 일한 노동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미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희생자 2명은 자매지간이었다.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 두 명을 떠나보내게 된 유족이 마지막 발언자다.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왼손으로 줄을 받쳐 잡고 있는 것을 보니,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아볼 일이라고는 노래방에서가 전부였던 것 같다. 이제 유족이 되어 발언한다.

유족은 "가족을 두 명이나 잃게 된 것도 억울한데 화성시의 행태를 보면 분노가 치민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권선진국이라 말하는데 진짜 그런가? 이게 진짜 나라인가?"라며 분노하고 "모든 유가족들이 기운을 내고 힘을 합쳐 먼저 보낸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뒤, 꾸벅 인사했다. 유족 발언인데 박수를 쳐야하나 말아야 하나, 군데군데서 작게 박수가 나오다가 이내 잦아든다.

추모제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추모글귀를 포스트잇에 적어 기둥에 붙이는데, 날이 바뀌면 이게 자꾸 사라져 있다. 대책위는 화성시에 추모할권리, 애도할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날마다 요구한다. 지친 손으로 유족들은 오늘도 새롭게 추모의 벽을 만든다.

“

00누나

一路走好(안녕히 잘가)

我们永远想念你(우린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거야)

希望下辈子我们还做兄妹(다음생에도 우리가 남매였으면 좋겠어)

想你(보고싶어)

”

오늘 7월 5일 다섯 번째 시민추모제가 열린다. 화성시 날씨는 어제와 비슷할 것이라는 예보다.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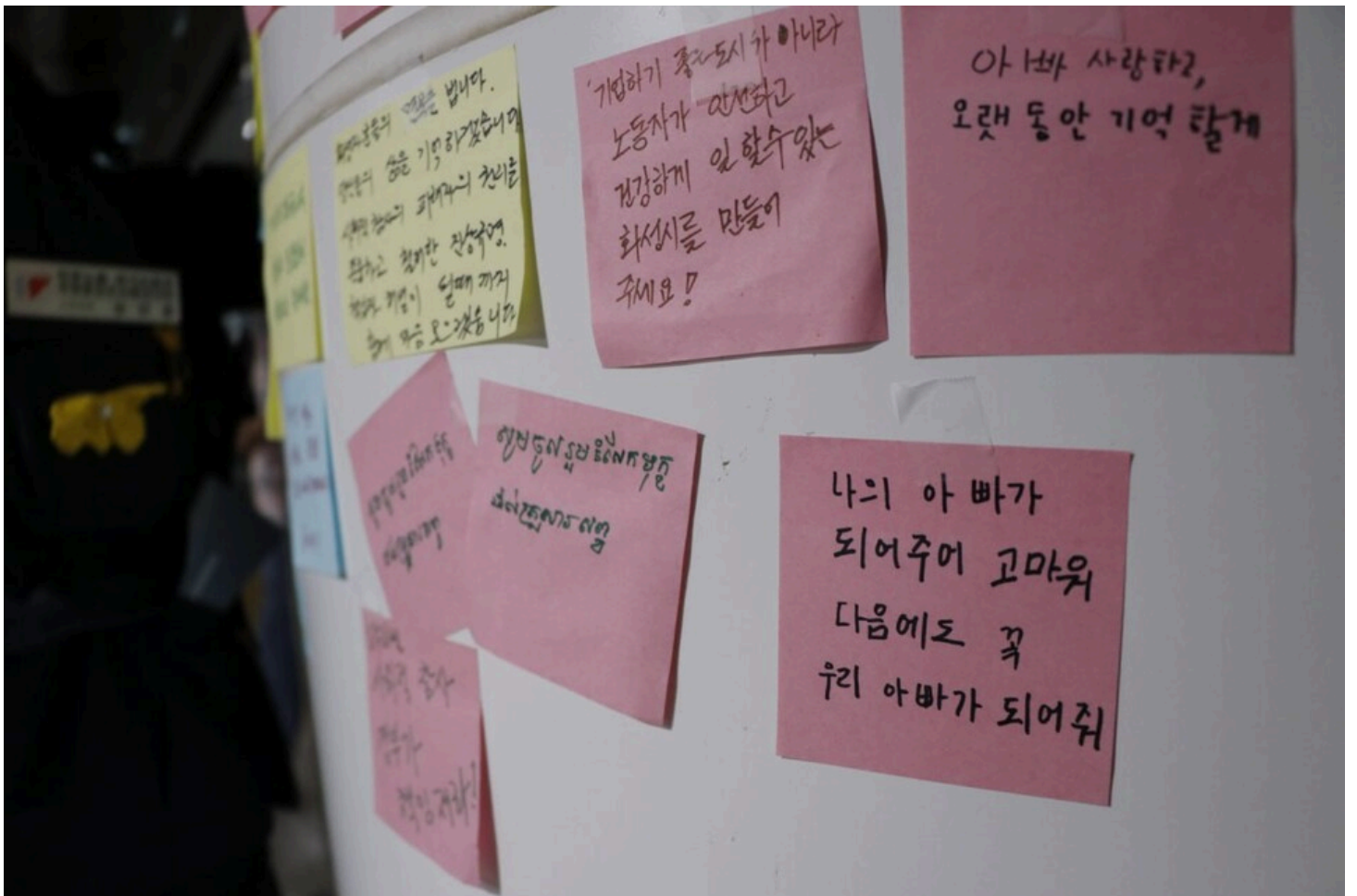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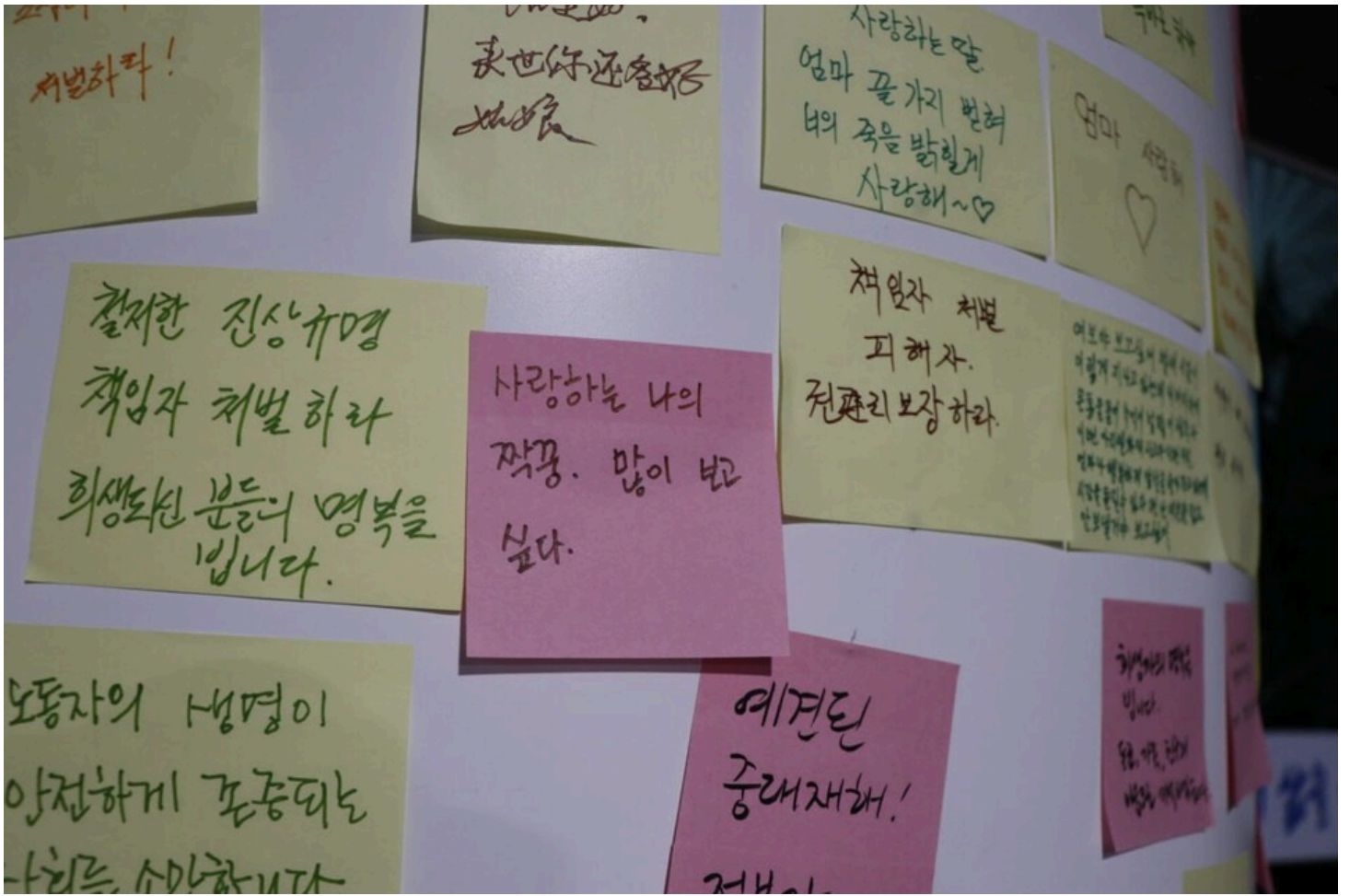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종대재해 네 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4일 오후 7시 열렸다. 사진=조연주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